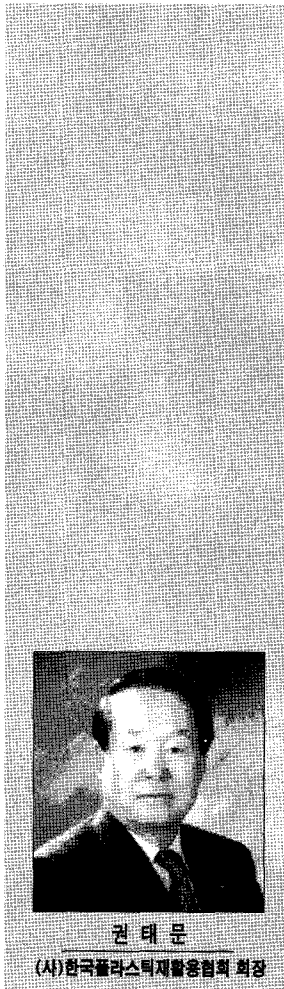




플라스틱 업계 현황 및 당면 문제점



권태문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

플라스틱 물질이 개발되어 인간에게 소개된 이래 인간의 삶은 그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만하다.

플라스틱은 인간들이 최상의 물질로 알고 수백 수천년 동안 쓰던 금속, 천연섬유, 천연고무, 종이, 유리 등의 대체 물질로 또는 그 보다 개선된 물질로 자리 잡아왔고 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물질은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목재, 알루미늄, 종이 등 경쟁재료보다 인장강도, 파열강도 면에서 우수하고 가벼우면서 다양한 색상 및 형태로 성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재생 불가능한 석유자원을 원료로 한다는 사실과 난분해성 등으로 잘 썩지 않는다는 환경적 특성으로 가끔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 인류의 삶 속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등장은 물건의 보호, 관련기술의 발전 식품의 보존성 연장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변화시켜 왔고 아직도 그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포장재 산업은 또한 현대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날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제품들이 환경적 문제로 잘 썩지 않는다는 점, 발생량이 많다는 점, 복합재질로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폐기물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20세기의 소재라고 불릴 만큼 인류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가히 생활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전자,

항공 및 우주산업까지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겨울에도 싱싱한 야채를 식탁에서 대할 수 있게 하였고 한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어느 곳에서나 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사용 후 처리 과정에서 재질 선별작업이나 이물질 제거작업이 까다로워 재활용률이 낮으며 극히 일부분인 PVC에서 소각 시 염소가스 발생하여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는 등 이슈가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이제는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이 또 하나의 업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플라스틱제품이 오히려 산림자원과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되어진 플라스틱은 공해물질이 아니며 귀중한 자원이다. 그리함에도 정부는 플라스틱제품에 너무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반면에 규제정책들이 그 효과 면에서 볼 때 미미한 실정이라고 보며 그 규제정책의 입안준비과정에서의 업계 불안심리와 규제시행에 따른 압박감 등으로 플라스틱 업계의 산업 활동 위축과 사업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플라스틱에 관련된 환경규제정책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해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회 경제적 역할과 연관지어 이루어져야한다.

작금의 시대적 흐름은 정책수단이 고전적 명령과 통제방식에서 경제적 유인책이나 상호합의에 의한 자율관리 방식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과학적·기술적 검토에 기초한 정책수단 선택이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규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플라스틱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우리 업계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플라스틱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로잡고 바른 정책이 입안되도록 단결된 힘으로 효과적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관리와 산업발전에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개발하여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